



교합평면 부조화와 수직고경이 상실된 환자의 전악 수복 증례

최일정*, 허성주, 곽재영, 김성균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전악에 걸쳐 마모와 부분적인 치아 상실로 교합 평면이 부조화를 이루고 수직고경이 상실되면, 그 변화의 과정 동안 근육 및 신경계는 변화에 적응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교합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수직고경의 회복과 교합평면을 재형성하기 위해서는 저작 근육과 신경계의 적응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교합고경을 회복한 후 안정된 교합을 평가하고 심미적이며 기능적인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한 치료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 증례의 환자는 63세의 여자 환자로, 전악에 걸친 마모와 이로 인한 심미적 문제, 교합평면의 부조화와 오래된 수복물들의 기능적 심미적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하악 전치부의 치관 길이가 매우 짧아져 있었고, 상악과 하악의 오래된 금속도재관의 변연부가 노출되어 비심미적인 모습이었다. 우측 구치부는 좌측보다 교합이 높은 상태였으며, 이로 인한 저작시 우측 구치부의 불편감을 호소하였다. 환자의 적절한 수직고경을 평가하기 위해서 안정위, 전치부 치아길이의 분석, 발음과 심미성 등을 평가하여 수직고경 거상을 결정하였다. 보철 처치 전에 교합안정장치를 2개월간 사용하게 하였다.

결정된 수직고경에서 진단 wax-up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전방유도와 대합관계 및 적절한 심미를 보이는 임시 수복물을 제작하였다. 상악의 모든 보철물을 제거하고, 치아를 형성한 후 임시 수복물을 장착하였다. 몇몇 치아들은 치아 우식증과 치근단 병소가 있는 상태여서 우식 치료 및 근관 치료를 시행하였다. 6개월간의 follow-up으로 환자가 심미적으로 만족하고 기능적으로 적응함을 관찰 하였다.

최종 보철물은, 환자가 적응한 임시 수복물의 수직고경에서, Gothic arch tracer를 이용하여 C.R guide 하였고, 이를 교합기에 이전하였으며, 임시 수복물을 이용하여 제작한 customized incisal guide table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청소의 용이성으로 인한 치주조직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치아 상실로 인해 bridge의 제작이 불가피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single crown으로 수복하였다. 전치부는 치은 부위의 심미적인 외관을 위해서 collarless PFG crown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치료과정을 통하여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수복이 가능하였기에 증례보고를 하는 바이다.